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22년 11월 22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2,150천 km <sup>2</sup> 	<b>인구</b> 35백만 명 (2021 <sup>e</sup> ) 	<b>정치체제</b> 이슬람군주정 	<b>대외정책</b> 실리외교 
<b>GDP</b> 8,335억 달러 (2021 <sup>e</sup> ) 	<b>1인당GDP</b> 23,507달러 (2021 <sup>e</sup> ) 	<b>통화단위</b> SaudiArabian Riyal(SAR) 	<b>환율(U\$기준)</b> 3.75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요르단·이라크·쿠웨이트, 동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남쪽으로는 오만·예멘과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원유 확인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세계 원유 수급과 가격을 주도하는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으로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립하고 있음.
- 2016년 경제개혁 정책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투자 규모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네옴'을 통해 중동의 랜드마크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음.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총리에 임명되어 왕세자의 대내외적인 입지가 더욱 강화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5년), 문화협정('75년), 항공협정('84년),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91년), 투자장려·보호협정('03년), 이중과세방지협약('08년),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2년), 국방협력협정('14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8년), 사증발급간소화양해각서('19년), 해상운송협력협정('22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3,697,120	3,301,896	3,324,694	자동차,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수입	21,840,581	15,979,621	24,271,348	원유, 석유제품, 정밀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신규법인수, 2022년 6월 말 누계)** 263건, 5,486백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2.5	0.3	-4.1	3.2	7.6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3.4	3.1	2.5
재정수지/GDP	-5.7	-4.4	-11.3	-2.4	5.5

자료: IMF, EIU

### 석유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여 2022년 큰 폭의 플러스 경제성장(7.6%) 전망

-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제 원유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 증산으로 석유 부문이 큰 폭의 성장(13.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석유 부문도 견조한 플러스 성장(4.2%)을 지속하여 전년(3.2%)의 2배 이상 상승한 7.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0월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22년 국제 원유수요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하루 약 1억 배럴 수준으로 전망됨.

※ 부문별 성장률 전망치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년 10월) 기준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9.9% 및 12.2% 성장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석유 부문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0.3% 및 22.9% 성장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비석유 부문도 각각 3.7% 및 8.2% 성장함.

[표 1] 사우디아라비아의 분기별/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20년 1분기 ~ 2022년 2분기)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GDP	-1.1	-7.2	-4.5	-3.8	-2.6	1.9	7.0	6.7	9.9	12.2
석유	-4.6	-5.3	-8.2	-8.6	-11.7	-7.0	9.3	10.9	20.3	22.9
비석유	1.3	-10.5	-3.5	-1.2	4.3	9.0	6.3	5.1	3.7	8.2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 2022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Aramco는 2022년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484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등 2022년 상반기 Aramco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879억 달러에 달함.

## 국내경제

[표 2] 세계 원유수요 추이(2021년 ~ 2022년 전망치 포함, 백만 배럴/일)

World oil demand	2021	1Q22	2Q22	3Q22	4Q22	2022	Change 2022/21	
							Growth	%
<b>Americas</b>	24.33	24.79	24.98	25.10	25.27	25.04	0.70	2.89
of which US	20.03	20.38	20.41	20.58	20.83	20.55	0.52	2.58
<b>Europe</b>	13.13	13.15	13.42	14.09	14.00	13.67	0.54	4.07
<b>Asia Pacific</b>	7.38	7.85	6.99	7.31	7.84	7.50	0.11	1.55
<b>Total OECD</b>	<b>44.85</b>	<b>45.79</b>	<b>45.39</b>	<b>46.50</b>	<b>47.12</b>	<b>46.20</b>	<b>1.35</b>	<b>3.02</b>
<b>China</b>	14.97	14.74	14.56	14.69	15.64	14.91	-0.06	-0.40
<b>India</b>	4.77	5.18	5.16	4.95	5.35	5.16	0.39	8.11
<b>Other Asia</b>	8.63	9.09	9.27	8.73	8.85	8.98	0.35	4.11
<b>Latin America</b>	6.23	6.32	6.36	6.55	6.40	6.41	0.18	2.92
<b>Middle East</b>	7.79	8.06	8.13	8.47	8.17	8.21	0.41	5.32
<b>Africa</b>	4.22	4.51	4.15	4.25	4.53	4.36	0.14	3.27
<b>Russia</b>	3.61	3.67	3.42	3.45	3.59	3.53	-0.08	-2.32
<b>Other Eurasia</b>	1.21	1.22	1.16	1.03	1.21	1.15	-0.06	-4.61
<b>Other Europe</b>	0.75	0.79	0.75	0.73	0.80	0.77	0.01	1.63
<b>Total Non-OECD</b>	<b>52.18</b>	<b>53.58</b>	<b>52.95</b>	<b>52.83</b>	<b>54.53</b>	<b>53.47</b>	<b>1.29</b>	<b>2.47</b>
<b>Total World</b>	<b>97.03</b>	<b>99.36</b>	<b>98.34</b>	<b>99.33</b>	<b>101.64</b>	<b>99.67</b>	<b>2.64</b>	<b>2.72</b>

자료: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2022년 10월)

### 원유 증산 속도 둔화 등으로 2023년에는 3.7%의 경제성장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대비 대폭 낮아진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IMF). 세부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실물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원유 증산규모 둔화 속에 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네옴시티 건설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비석유 부문은 3.8% 성장할 전망이다.

※ 부문별 성장률 전망치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년 10월) 기준

[표 3] 주요 기관별 2022~23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성장 전망

구 분	단위: %			
	IMF(10월)	S&P(9월)	IHS(10월)	EIU(10월)
2022년	7.6	7.5	7.8	9.1
2023년	3.7	2.9	3.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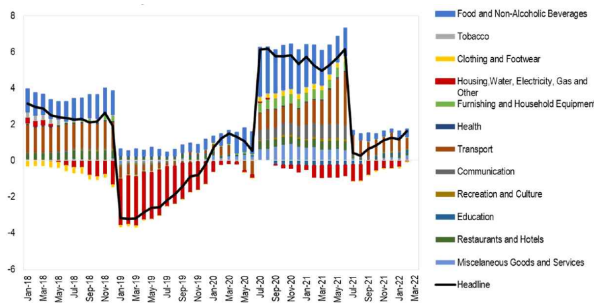
※ ( )는 기관별 전망치 발표 시기

## 국내경제

부가가치세율 인상(2020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가격상한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3.1%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2.5%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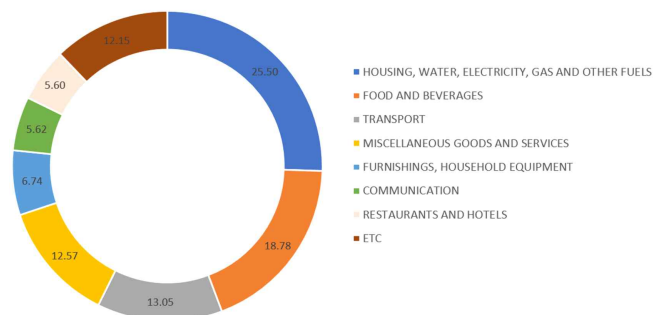
- **[2021년]** 전년도 부가가치세율 인상<sup>1)</sup>(5%→15%, 2020.7월)의 기저효과와 휘발유 가격 상한제 도입(2021.7월), 주택 임대료 하락의 영향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3.1%를 기록함.
-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료품, 전기, 상하수도, 휘발유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가격상한제 적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한하였음.
-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20.97%)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하락도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한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영향(%)



자료: IMF

[그림 2]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비중(%)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 **[2022년]** 식품 및 수송 부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 도입한 휘발유 가격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 주요국(지역)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미국 8.1%, 영국: 9.1%, 유로존 8.3%, 중국 2.2%, 인도 6.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년 10월)

석유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2022년 재정수지는 2014년 이후 첫 흑자 전환이 전망되며, 2023년에도 흑자 기초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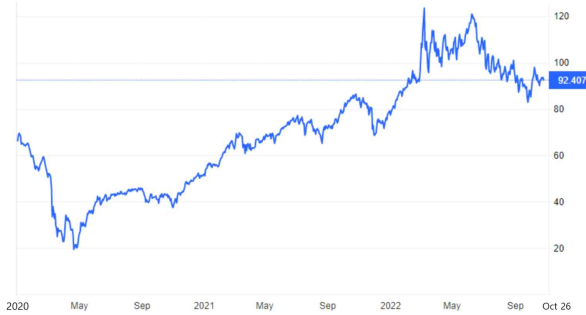
- **[2022년]** 재정수지는 석유 부문의 수입(收入) 증가에 힘입어 2022년 GDP 대비 5.5%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재정수지 흑자 시현은 2014년 이후 처음임.
-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가에 힘입은 2022년 석유 부문의 수입 증가(전년 대비 47% 증가한 8,240억 리얄)로 전체 재정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 2,290억 리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재정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8%에서 2022년 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엄격한 지출 관리에 따라 2022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조 180억 리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 침체 및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함.

## 국내경제

[그림 3] 국제유가 추이(2020.1월~2022.10월)

단위: 달러/배럴, 브렌트유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표 4]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수지(2021~23년)

단위: 억 리알

구 분	2021년	2022년 <sup>f</sup>	2023년 <sup>f</sup>
재정수지 (GDP 대비)	-730 (-2.4%)	2,110 (5.5%)	1,880 (3.9%)
재정수입	9,650	12,290	12,240
석유	5,620	8,240	7,950
비석유	4,030	4,050	4,290
재정지출	10,390	10,180	10,360

자료: IMF

- [2023년] IMF 등 주요 기관은 2023년 국제유가가 2022년 대비 하락하되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재정 유가(배럴당 66.8달러, IMF 기준)를 상회하는 배럴당 8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에도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함.

[표 5] 주요 기관별 국제유가 및 재정수지 전망(2022~23년)

단위: 달러/배럴

		IMF(10월)	S&P(9월)	IHS(10월)	EIU(10월)
2022년	국제유가	98.19	103	106.35	102.0
	균형재정 유가	73.3달러/배럴			
	재정수지/GDP	5.5%	6.3%	16.5%	9.3%
2023년	국제유가	85.52	85	97.89	91.7
	균형재정 유가	66.8달러/배럴			
	재정수지/GDP	3.9%	3.5%	11.9%	7.1%

※ ( )는 기관별 전망치 발표시기, 균형재정 유가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년 10월) 참고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71,972	38,230	-22,814	44,324	140,892
경상수지/GDP	8.8	4.8	-3.2	5.3	13.5
상품수지	168,749	121,336	47,944	136,464	244,503
상품수출	294,387	261,617	173,864	276,198	415,958
상품수입	125,638	140,281	125,920	139,735	171,455
외환보유액	486,417	488,245	441,178	429,497	435,971
총외채	151,040	186,528	237,614	286,896	293,265
총외채잔액/GDP	18.5	23.2	33.8	34.4	28.2
D.S.R.	5.0	6.6	10.1	8.2	6.0

자료: IMF, EIU

### 상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은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두 자릿수(13.5%)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석유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상품수출의 73%를 차지(2021년)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은 큰 폭의 상품수출 증가(전년 대비 51% 증가한 4,160억 달러 전망)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입 확대(전년 대비 23% 증가한 1,715억 달러 전망)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2년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2,44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2022년 GDP 대비 13.5%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2년 1~7월 원유 수출액은 7,451억 리얄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IM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평균 원유 수출 규모가 2021년 6.4백만 배럴에서 2022년 7.9백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년 10월) 기준

### 경상수지 흑자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실물경기 둔화 속 원유 수출액 감소 우려와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실물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액이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 대비 낮아진 12.3%를 기록할 전망이다(IMF).

## 대외거래

[표 6] 주요 기관별 사우디아라비아 경상수지 전망(2022~23년)

구 분		IMF(10월)	S&P(9월)	IHS(10월)	EIU(10월)
경상수지/GDP(%)	2022년	16.0	13.7	15.3	14.0
	2023년	12.3	10.1	14.6	9.8

※ ( )는 기관별 전망치 발표시기

[표 7] 사우디아라비아 경상수지 구성 항목별 전망(2022~23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경상수지	140,892	98,707	-30%
상품수지	244,503	204,838	-16%
수출	415,958	404,068	
수입	171,455	199,230	
서비스수지	-73,183	-78,445	7%
수출	12,724	14,188	
수입	85,907	92,633	
본원소득수지	16,161	17,507	8%
수취	30,023	32,875	
지급	13,862	15,369	
이전소득수지	-46,590	-45,192	-3%
수취	-	-	
지급	-46,590	-45,192	

자료: EIU

## 외채상환능력

### D.S.R.은 총수출 증가에 따라 2021년 8.2%에서 2022년 6.0%로 하락할 전망

- **[2021년]**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206억 달러 → 258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총수출이 증가(2,046억 달러 → 3,142억 달러)함에 따라 D.S.R.은 전년(10.1%) 대비 하락한 8.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증가를 지속할 것(258억 달러 → 275억 달러)으로 예측되나,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지속으로 총수출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3,142억 달러 → 4,587억 달러)하여 D.S.R.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6.6%)보다 낮은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월평균수입액의 19개월 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우수한 편

-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의 19.3개월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외채잔액 증가(2,869억 달러 → 2,933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3,142억 달러 → 4,587억 달러)에 힘입어 총외채잔액/총수출 비율은 2021년 91.3%에서 2022년 63.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9월 OECD 전망에 따르면 2022년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규모는 8,880억 달러로 총외채잔액의 3.0배 및 GDP의 0.9배 수준이며, 이처럼 막대한 국부펀드의 존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규모는 2022년 3월 말 기준 6,200억 달러로, 단일 국부펀드 기준 전 세계 6위\* 수준임.

\* 2022년 3월 말 기준 PIF 규모는 PIF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국부펀드 순위는 2022.10.28.자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자료 기준임.

[표 8] 전 세계 상위 10대 국부펀드

순위	펀드명	규모	순위	펀드명	규모
1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1조 2,688억 달러	6	Public Investment Fund (사우디)	6,074억 달러
2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1조 2,223억 달러	7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5,889억 달러
3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088억 달러	8	Temasek Holdings(싱가포르)	4,966억 달러
4	Kuwait Investment Authority	7,084억 달러	9	Qatar Investment Authority	4,610억 달러
5	GIC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6,900억 달러	10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중국)	4,474억 달러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조회일자: 2022.10.28.)

## 구조적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에 취약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2016년부터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2021년 기준 GDP의 29%, 상품수출의 73%를 차지)가 높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제유가 및 석유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함.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및 석유 국제수요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4.1%)과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3.2%) 회복 및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5.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재정수지 - 11.3%, 경상수지 - 3.2%

## 성장잠재력

### 수소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잠재력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소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공장인 NEOM Helios 건설을 추진(2025년 완공 예정)하고 있음.
- 'Helios Green Fuels'로 명명된 동 프로젝트는 Air Products(미국), ACWA Power(사우디), NEOM 신도시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시 하루 650톤의 그린 수소와 매년 120만톤의 그린 암모니아가 생산될 예정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린 수소 생산에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수소 수출에서도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석유 및 천연가스의 오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높음.
-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자금력 역시 수소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제시장의 우호적인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조달 가능성도 높은 편임.

\* Moody's A1, Fitch A

## 성장잠재력

###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가로 인한 2022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으로 투자여력 개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 그로 인한 미국과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 OPEC+의 적극적인 국제유가 개입 의지<sup>2)</sup> 등으로 인해 202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sup>3)</sup>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 증가<sup>4)</sup>에 힘입은 재정수지 흑자(2022년 GDP 대비 5.5%) 전환으로 투자여력 개선이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하루 산유량: 2021년(e) 9.1백만 배럴, 2022년(f) 10.6백만 배럴(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2년 10월)

- IMF는 2022년 10월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and Central Asia)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 균형재정 유가를 배럴당 73.3달러로 전망하였으며,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2022년 10월 초부터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지속 중인 점 등을 고려 시 2022년 재정수지 흑자 가능성은 높은 편임. 한편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균형재정 유가(66.8달러/배럴, IMF)와 주요 기관별 2023년 국제유가 전망치 등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재정수지 흑자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여력 개선이 전망됨.

###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중 35세 미만의 비중은 67%로 결혼 적령기 청년층 비중이 높으며, 합계출산율<sup>4)</sup>은 2.2명(World Bank 기준)임. IHS Markit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높은 젊은층 비중은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됨과 동시에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다만 충분한 일자리 마련 및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 '네움'을 통한 중동의 랜드마크로의 도약 가능성

- '네움'(Neom) 프로젝트는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저탄소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임. 투자 규모가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네움 프로젝트의 핵심은 직선 도시 '더 라인(The Line)', 해상 산업단지 '옥사곤'(Oxagon), 휴양·레저 도시 '트로제나'(Trojena)를 건설하는 것으로, 홍해 인근 사막 2만 6,500km<sup>2</sup> 부지에 조성될 예정임.
- 2022년 7월 빈 살만 왕세자는 '네움' 프로젝트의 일부인 '더 라인' 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1단계 사업에 2030년까지 3,2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22년 9월 기초공사에 들어간 '더 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을 가로질러 길이 170km·폭 200m·높이 500m의 유리벽 구조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완공 시 약 900만 명의 거주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됨.
- 주거, 소매 및 레저 지역은 물론 학교와 공원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상에는 자동차 대신 시민과 보행로를 위한 녹지가 조성되고 지하에는 고속철도와 인프라를 위한 2개의 다른 층이 만들어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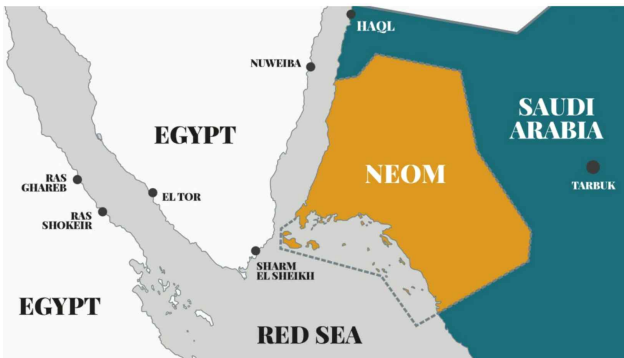
2)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에 합의함.

3) 2022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가격: 101.61달러(자료: 한국석유공사, 자료 검색일: 2022년 11월 1일). 기관별 2022~23년 국제유가 전망치는 보고서의 '표 5' 참고.

4)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성장잠재력

[그림 4] 네옴 사업 위치



자료: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9]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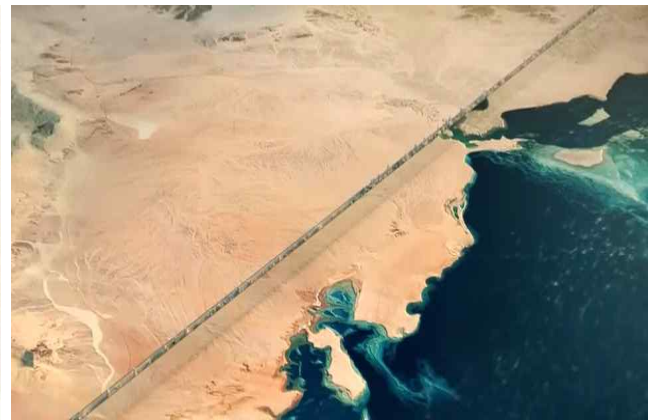
위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인근
면적	2만 6,500km <sup>2</sup> (서울의 44배)
총투자규모	5,000억 달러
일정	2025년 1차 완공, 2030년 2차 완공
수용가능 인원	약 900만 명
3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라인: 길이 170km, 너비 200m의 친환경 직선 도시</li> <li>· 옥사곤: 팔각형 형태의 해상 산업단지</li> <li>· 트로제나: 산맥과 호수가 있는 친환경 관광단지</li> </ul>

자료: 각 언론사 자료 참고

[그림 5] '더 라인' 완공 모습



자료: ParametricArchitecture



자료: NEOM

- 한편 2022년 10월 네옴의 '트로제나'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어 서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대회가 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통해 '네옴'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트로제나' 건설을 통해 10,000개의 일자리와 8억 달러 규모의 GDP 창출 및 향후 연간 70만 명의 관광객과 상시 거주자 7천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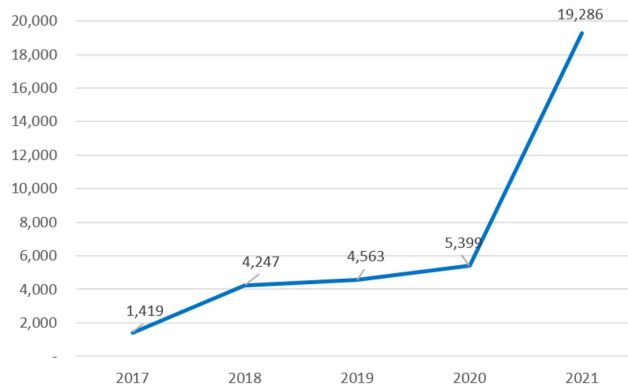
### 적극적인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실시

- 2021년 2월 빈 살만 왕세자는 정보통신(IT),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중동 본부를 리야드로 이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HQ' 정책을 발표하였음.
- 동 정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지역본부를 설립한 기업에 50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사우디인 고용 할당량 적용 면제, 미래 규제로부터의 보호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자국 내에 중동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함. 동 정책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44개 글로벌 기업이 지역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함.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국영기업 주도의 다양한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Aramco는 IKTVA(In 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까지 제품 구매비율의 70%를 현지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은 BENA(Build & Employ National Abilities)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 입찰 업체 평가 시 현지 생산 제품의 구매 비율 및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 준수 여부 외에 현지인 기술교육 여부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현지화 정책을 추진 중임.

###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추진으로 2021년 큰 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증가 기록

-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FDI 유입액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19,286백만 달러<sup>5)</sup>를 기록하였음. 외국인투자 허가증 발급 건수도 2020년 1,266건, 2021년 4,476건에서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13,838건<sup>6)</sup>을 기록함.
- 2017년 2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방산, 방송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2020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우디 투자청(SAGIA)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MISA)로 승격하는 한편, 투자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 허가증을 3시간 이내 발급하는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임.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액 추이(2017~21년, 백만 달러)



자료: UNCTAD\_World Investment Report\_2022

5) 2021년 2분기 Aramco가 송유관 자회사(Aramco Oil Pipelines Company) 지분의 49%를 미국 EIG global Energy Partners 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124억 달러에 매각한 것이 2021년 FDI 유입액 증가를 견인함.

6) Argaam(사우디아라비아 금융 뉴스 포털) 자료 참고(원자료: MISA)

## 정치안정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상의 군주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국가로, 국왕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음. 국왕이 전원을 임명하는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 수행)에서 정책 심의·자문 및 법률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함.
- 살만 국왕은 1935년생으로 2015년 1월 즉위 당시 이미 79세의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로한 살만 국왕을 대신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살만 국왕 유고 시 왕세자의 왕위 계승이 유력함.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현재 30대인 만큼 왕위 계승 시 장기 집권이 전망됨.

### 빈 살만 왕세자의 총리 임명으로 대내외 입지 강화

- 2022년 9월 살만 국왕은 칙령을 통해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빈 살만 왕세자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
- 제3대 파이살 국왕 이래 국왕이 총리직을 겸직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이번에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총리를 맡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정상회담 의장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빈 살만 왕세자의 총리 임명으로 왕세자의 대내외적인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 '사우디 비전 2030' 등 왕세자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

- 2017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를 창설함.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빈 살만 왕세자는 칙령 발표 당일 다수의 왕자들을 포함하여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한 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 연금하였음. 이들은 거액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고 빈 살만 왕세자에게 충성 서약을 한 뒤에야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 빈 살만 왕세자는 반부패위원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하였으나, 국제사회는 그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만한 세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2021년 4월과 10월에도 다수의 정부 부처 직원·관리 등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음.

## 사회안정

### 언론의 자유는 최하위권 수준

- 빈 살만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2017년 6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 활동가·기자들에 대한 구금, 고문 또는 징역이 가해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특히 2018년 10월 개혁 성향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피살된 사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지목된 바 있음.
- 한편, GCC 국가들의 언론자유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 GCC 국가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2022년): 카타르 119위, 아랍에미리트 138위, 쿠웨이트 158위, 오만 163위, 바레인 167위

### 2021년 부패인식지수는 GCC 국가 중 3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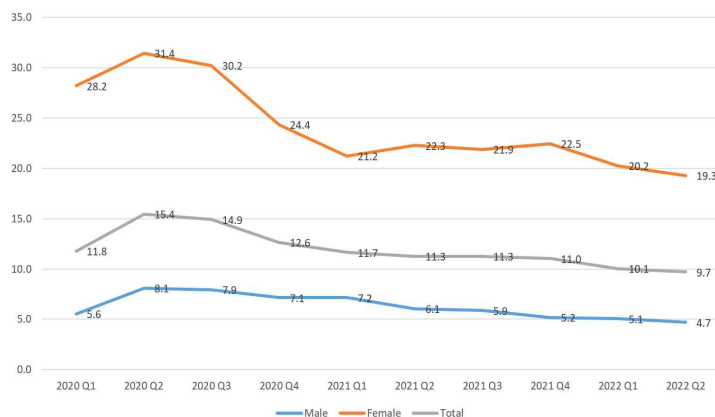
-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52위(총 180개국 대상) 및 53점으로 아랍에미리트(24위, 69점), 카타르(31위, 63점)에 이어 GCC 국가 중 3위를 기록함.

※ 오만(56위, 52점), 쿠웨이트(73위, 43점), 바레인(78위, 42점)

### 실업률 감소로 사회불만 완화 전망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동년 4월 21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9.33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국내경제 침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은 2022년 2분기에 15.4%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국제유가 및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22년 7.6%의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며, 이는 G20 국가를 포함하여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아시아의 다른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를 뛰어넘는 수치임.

[그림 7] 사우디아라비아 실업률 추이(2020.1분기~2022.2분기, %)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자료 재가공

## 사회안정

###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력과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 및 사회 위험 등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Positive)~5(Very Highly Negative)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증가는 사막 기후를 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며, 청년층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효과적인 현지인 의무고용 정책 시행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의 구조 및 재정 개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함.



## 국제관계

###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미국과는 관계 냉각, 러시아·중국과는 협력 확대

- **(미국)**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 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친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실제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으며, 미국산 무기를 무고한 민간인의 살해에 사용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또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을 빈 살만 왕세자가 승인했다고 판단하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임.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군사협력 발전 협정을 체결(2021년 8월)하는 한편, 원유수출 계약의 일부 물량을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2022년 3월)하는 등 미국에 대립각을 세움. 특히 국제유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2022년 7월)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한다는 OPEC+의 결정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미국은 OPEC+의 감산 결정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첨단무기 수출 제한을 포함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가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음.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튀르키예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을 중재(2022년 9월)하고, OPEC+를 통해 원유 감산 여부 및 규모의 결정을 주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019년 28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사우디아라비아에 5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대 중국 교역 금액(비중): 수출 50,910백만 달러(18.4%), 수입 30,235백만 달러(21.6%)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sup>7)</sup> 등 양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 석유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2분기 러시아로부터의 발전용 연료유 수입량을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인 하루 48천 배럴로 늘리는 등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늘림<sup>8)</sup>.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모임) 가입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sup>9)</sup>.

7) US intel and satellite images show Saudi Arabia is now building its own ballistic missiles with help of China(CNN, 2021.12.23.)

8) Exclusive: Saudi Arabia doubles second-quarter Russian fuel oil imports for power generation

9) BRICS expects Egypt, Saudi Arabia and Turkey to join group soon(Middle East Monitor, 2022.7.14.)

## 국제관계

###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인 이란과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경쟁관계이며, 최근 양국 간 긴장 고조

-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인 이란과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지역 분쟁을 세력 확장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대립하고 있음. 그 결과 중동 지역은 친미 성향의 수니파 진영과 반미 성향의 시아파 진영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임.
- 양국은 2021년 4월 이후 이라크와 오만의 중재 하에 관계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022년 4월 무스타파 알카디미 이라크 총리는 5차 회담 이후 양국 간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으며,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협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바 있음.<sup>10)</sup>
- 그러나 2022년 11월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란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WSJ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목표물들과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sup>11)</sup>임. 이란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이라크 북부를 수습 발의 탄도미사일과 무장 드론으로 공격해 왔으며, 이 중 하나가 에르빌을 향해 날아가다 미군 군용기에 의해 격추되었음.
- 미국은 첩보를 공유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이란의 침공 계획은 이란이 '히잡 사태'<sup>12)</sup>로 인해 격화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 예멘 후티 반군의 테러 위협 지속

-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예멘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후 예멘 내전은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시아파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됨.
-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2022년 4월 이후 총 6개월 간 임시 휴전에 합의하며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10월에 임시 휴전 종료 직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내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두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하여 다시금 긴장이 고조됨.
- 한편, S&P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JCPOA) 복원 협의가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임시 휴전 종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10) 5차 회담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이란인 4만 명의 메카 성지순례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Saudi Arabia agrees to allow 40,000 Iranian pilgrims for Hajj(The New Arab, 2022.4.28.)

11) 이란은 에르빌에 근거지를 둔 이라크 내 세력들을 '이란 쿠르드 분리주의자'라고 칭하면서 공격해 옴.

12) 2022년 9월 수도 테헤란에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자유에 대한 요구와 정권 퇴진 촉구로 이어져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산됨.

## 외채상환태도

###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2년 6월 30일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15,156백만 달러 (단기 1,093백만 달러, 중장기 14,063백만 달러)이며, 이 중 215백만 달러가 연체 중임. 연체비율이 1.4%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22.01)	2등급 (2021.01)
Moody's	A1 (2021.11)	A1 (2020.05)
Fitch	A (2022.04)	A (2021.07)

###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 유지 속 등급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

- OECD는 2005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 중임.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등급을 유지 중이나, 재정건전성 개선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노력,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재정수지 개선,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막대한 국부펀드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등급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함.
- Moody's는 2016년 5월 이후 'A1' 등급을 유지 중이나, 등급 전망은 2021년 11월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함.
- Fitch는 2019년 9월 이후 'A' 등급을 유지 중이나, 등급 전망은 2022년 4월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 및 국제 원유수요 증가에 힘입은 석유 부문의 대폭 성장(13.1%)에 힘입어 2022년 7.6%의 경제성장 및 GDP 대비 5.5%의 재정수지 흑자(2014년 이후 처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도 원유수출 증가로 인한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로 2022년 GDP 대비 13.5%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총외채의 3.0배 및 GDP의 0.9배 규모의 막대한 국부펀드는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증가한 외환보유액(2021년 4,295억 달러 → 2022년 4,360억 달러 전망) 규모는 2022년 월 평균수입액의 19개월분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총외채잔액/GDP(34.4% → 28.2%), D.S.R.(8.2% → 6.0%) 등 전반적인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개선됨.
-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2021년 말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등급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 중동 정책 변화에 따라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